

# 갈등(葛藤)의 어원을 아시나요?

## ■ 칩, 등나무 이야기

갈등은 칩[葛]과 등나무[藤]를 의미하는 단어다. 칩과 등나무는 각자 존재할 때는 관찮은 의미와 쓰임새를 갖고 있으나 서로 엉키면 대책불능이다. 이른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칩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떼어놓기도 쉽지 않다. 숲 속에서도 칩과 등은 수종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동치를 감아 올라가면서 숲통을 조인다. 인간 세상에서나 숲 속에서나 갈등은 무서운 문제이다. 이런 무서운 갈등이 숲에서 유래했으니 숲은 그 해결책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이 시대 최대 화소는 갈등이다. 갈등의 전성시대, 범람하는 갈등의 바다다. 가끔 소통을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나 꺾전에 맨둘다 사라진다. 갈등 해소를 위해 덕망 높은 정치 지도자, 종교인, 학자들이 끊임 없이 부르짖어도 좀체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로 갈등은 해소되지만 소방차로 물 대포를 쏘아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葛藤)'은 한자어 그대로 '칩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갈(葛)→ 칩 갈', '등(藤)→ 등나무 등' 자이다. '칩'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칩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즉 '갈(葛)'은 '등(藤)'을 감고, 등은 감을 감아 올라간다. 이처럼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갈등'이다. 따라서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가도 화합해 만날 수가 없다. '갈등'의 어원은 이 같은 두 나무 줄기의 속성에서 비롯됐다. 우리 선조들이 식물을 바라보는 세심한 관찰력과 지혜를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이 절묘하게 적용했다.

칩과 등나무가 서로 까다롭게 얽혀 있으면 그 둘을 떼어 풀이 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갈등'은 '일이나 인간관계가 까다롭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 또는 개인의 내부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칩은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빨리 자라는 목본성 덩굴로 덩굴에 털이 나기도 하며 한 계절에 길이가 18m까지 자라기도 한다. 큰 잎이 달리고 붉은빛이 감도는 자주색 꽃이 핀다. 꽃이 지면 편평하고 털이 난 씨포투리가 맺힌다.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이들 지역에서는 녹말을

함유한 식용뿌리와 줄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섬유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재배했다. 칩은 가파른 독의 토양을 고정시켜 칩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북아메리카에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과 관목 위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땅으로 쉽게 퍼져 나가 미국 남동부 일부지역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가 됐다.

칩은 줄기로는 밧줄이나 섬유를 만들었으며 꽃과 뿌리는 약으로, 뿌리는 구황식물로, 또 잎은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널리 사용했다. 칩으로 만든 밧줄은 매우 단단해 다리를 놓는 데 쓰이거나 밧줄 및 주낙 줄로 사용했으며, 삼태기나 바구니를 만들기도 했다. 칩 줄기를 여러 중부 무렵에 캐서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 만든 하얀 섬유로 짠 옷감을 갈포라고 하는데, 갈포는 한때 눈처럼 희고 반짝반짝 윤이 나듯 가운데 최상품으로 여겨졌다.

한방에서 여름에 뿌리와 꽃을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갈화(葛花), 뿌리 말린 것을 갈근(葛根)이라고 한다. 갈화는 장풍(腸風)에, 짚게 썰어 말린 갈근은 치열, 산열, 발한, 해열에 쓰인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칩뿌리 생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잎은 5월에 따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 겨울에는 뿌리를 캐서 찜은 다음 물에 여러 번 담가 양금을 가라앉혀 만든 녹말로 과자나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녹말을 갈분이라고 한다. 원래 갈분은 칩의 뿌리에서 얻는 것을 지칭했는데, 요즘은 감자 녹말가루를 흔히 갈분이라고 한다.

등나무는 덩굴류의 식물 중에서도 꽃이 크고 화려하다. 은은한 향기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식물이다. 여름엔 넉넉한 그늘을 쥐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쓰임이 많은 대표적 조경수다. 등은 전국적으로 공원과 정원에 심고 있다. 나무 또는 다



경주 현곡면 오우리 등나무



칩꽃



칩꽃



등나무

갈등... 칩(葛)과 등나무(藤)서 유래  
칩은 섬유 확보 위해 오래전부터 재배  
등은 조경·식용·염료용으로 사용  
서로 엉키면 대책 불능, 갈등이 생겨

른 물체를 감싸며 기어오르는 덩굴성으로 10m이상까지 자란다.

연보라색 꽃은 5월에 밑을 향해 피며 짙은 향기가 난다. 크기 30~40cm의 연보라색 꽃은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려 장관을 이루고 향기가 좋다. 열매는 9월에 영글며 다음해 1월까지 줄기에 콩포투리 채로 그대로 달려 있다가 두 갈래로 쪼개지며 씨앗이 밖으로 나온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하지만 비옥하고 수분이 알맞은 곳에선 생장이 매우 빠

르다. 번식은 씨뿌리기와 꺾꽂이로 할 수 있다.

등은 조경용, 식용 및 염료용으로 쓰인다. 한여름의 푸른 잎은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원이나 정원에서 그늘 막 컴퓨터의 조정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등은 잎과 꽃을 먹을 수 있다. 새순은 등채(藤菜), 꽃은 등화채(藤花菜)라고 하는데,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약술을 담아 먹는다. 잎은 염료로도 쓰이며 줄기는 질기고 탄력이 있어 바구니, 의자 등 가구를 만드는 소재로 쓰인다.

칩과 등은 각자 존재할 때는 관찮은 의미와 쓰임이 있다. 그러나 그 둘이 엉키면 대책불능이다. 이른바 갈등이 발생한다. 전쟁을 비롯한 모든 재난은 갈등의 산물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법, 적어도 최소화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인 책무다.

한편, 칩과 등은 숲의 무뢰한이다. 숲 가꾸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칩과 등이 너무 밍다. 그것들은

숲을 망치는 게릴라들이다. 수종(樹種)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동치를 감아 올라간다. 공손히 감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숲통을 조이면서, 동치의 영양을 뺏면서 감아 올라간다.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 몇 년 내에 고사(枯死)한다.

숲 속에서나 인간 세상에서나 칩과 등, 갈등은 무서운 놀음이다.

그런데, 실제 칩과 등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칩은 칩대로,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칩과 등이 엉킨 것을 찾아 보려고 여러 날 산을 헤집으며 다녀보았으나 찾질 못했다. 그래서 '숲에는 갈등이 없다'라는 엉뚱한 제목을 붙였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 사찰등록안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